

“조상 덕 의지 말고 나와 남 위한 기도를”

홍법사 지장천일기도 법문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천도제(薦度齋)는 망자(亡者)의 넋을 기리며 극락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지내는 불가의 의식이다. 일반적으로 49재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100일제·소상·대상 등으로 치러진다. 심산 스님은 4월 6일 지장재일(음력 2월18일)을 맞아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지장천일기도 입재식 법문을 설했다. 심산 스님은 “천도제를 지내는 의미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 뿐 아니라 재를 지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며 “의식을 올리는 사람 또한 천도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박이름 수습기자

망자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천도제

지난달 지장천일기도 회향에 이어 오늘 새로운 지장천일기도 입재를 맞았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천도제는 영가를 이 사바세계의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극락정토로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도 의식 가운데는 수륙재뿐만 아니라 49재, 영산제 등도 포함을 합니다. 그 재들이 가진 공통의 뜻은 이고득락(離苦得樂),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의식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연고자 하는 즐거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한 즐거움, 즉 진리에 의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일이나 떡, 초와 향 같은 재물을 많이 차리는 물질적인 천도가 아니라 영가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그 진리에 의해 영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살아있는 후손 제자들의 입장에서 천도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망자의 원한관계나 모든 악업 등을 소멸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도제를 하는 이유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영가가 지었던 모든 악업과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은 살아생전 지었던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원한이나 불편한 마음을 다 접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해서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일컬을 때 환지분처(還至本處)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극락에 머물지 말고 속환사바(速還娑婆)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말이지요. 우리 삶은 사실 떠나지 않고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휩싸이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업을 짓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인 환지분처의 숨은 뜻은 '죽음으로 가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시기질투와 시비선악의 모든 고리를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열반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살아있는 동안 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선악, 시비 모든 관계의 복잡

함을 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삶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나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선악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살아서 그런 마음을 모두 끊고 그저 삶에 대해 감사하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열반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의식작용, 안이비설신 모든 감각이 멈춰버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업, 서운한 관계 등을 소멸하고 본래 청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계기의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극락도 지옥이 될 수 있다

돌아가신 영가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마다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도제는 그 마음들을 모두 접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49재를 지낼 때 영상편지를 영전에 보내지요.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서운함 아쉬움 애석함 섭섭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제에서 죄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천도제는 어떤 조건, 어떤 형태로든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사람의 입장에서 '망자가 지었던 모든 악업과 원한을 소멸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극락으로 왕생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자의 입장에서 천도제의 의미를 살펴 보면 불교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사유(四有) 네 가지가 있다 말합니다.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 중유(中有)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유(生有)는 태어남을 의미하고, 본유(本有)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유(死有)는 죽을 때, 중유(中有)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상태이지요. 생유와 사유는 본유나 중유와 비교해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찰나이거나 예상한 짧은 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본유(本有)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으로 사람마다 모두 다른 모습과 시간을 보냅니다. 업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인만이 아니라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불가에서는 보편적으로 49일 만에 새로운 몸을 받는다 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49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살아생전 업을 잘 지



심산 스님은 ... 1981년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문화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성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과 불심홍법원 이사, 동련 이사장 등 소임을 맡아 포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제10회 포교대상 원력상, 2002년 불이상, 2008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수륙·영산제·49재 등 천도 의식은 중생의 이고득락·해탈 위한 행위

불교 목표는 살아생전 열반 얻는 것 악업·서운한 관계 소멸하고 본래 청정 모습 회복하면 열반 이르러

지혜로워야 극락에 갈 수 있어

지혜란 순간의 판단에서

가장 보편적 가치를 찾는 것

천도 의식은 영가에 부처님법 설해 보편적 가치 알려 무지 일깨워줘

천도 의식은 영가에 부처님법 설해 보편적 가치 알려 무지 일깨워줘

으면 굳이 49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극락세계에서 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이요, 49일이 지나고도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유신이란 이승에도 저승에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을 말합니다. 또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새로운 몸을 얻을 때까지 49일의 기간을 중유(中有)라고 하는데 이 중유의 시간에는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보다 훨씬 더 똑똑한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영가보다 될 똑똑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침침해서 글이 안보이고, 귀가 멀어서 안들리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에 의지하게 되면 그 능력의 한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배움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망자를 위한 천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뇌, 청력, 감각 등의 한계 때문에 잘 모르던 사람도 영가가 되고 나면 모든 것에 전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영가에게 진

리를 설해 준다고 하면 바로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도 의식을 하는 동안 우리가 외는 염불을 영가가 듣는 순간 이해하고 지혜광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가가 육신을 가진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은 맞지만 사람도 똑똑하고 될 똑똑한 사람이 있듯이 영가 중에서도 똑똑한 영가가 있고 덜 똑똑한 영가가 있습니다. 탁한 영혼, 맑은 영혼들이 다각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완전한 청정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영가가 돼서도 지혜를 깨달음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승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마음씀씀이가 저 세상의 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승에서 업을 잘 쌓아야 하며, 놓을 것은 놓고 가야 다음 생에서도 업과 습에 의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만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 즉 지혜롭다는 의미는 단순히 암기력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판단에서 가장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한 가지가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공평한 가치를 아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즘 핸드폰은 낱새, 검색, 사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핸드폰이 만능이라고 해도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을 때 만능인 것인지 핸드폰이 만능이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다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극락세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극락세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 때 극락이 극락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모르면 극락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도 의식은 영가에게 부처님 법을 설해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동안 자신이 사리사욕에 잡혀 살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근기(上根機)로 천도재를 행하라

요즘은 일반 사람들은 천도 의식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도 의식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첫째는 영가가 지었던 모든 악업이나 영가와 나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들을 소멸하고 영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기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생전보다도 훨씬 똑똑한 영가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설했을 때 더욱 빨리 지혜를 얻게 되니,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천도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바로 천도재를 모시는 이유가 돌아가신 영가를 위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도 이르길 제사를 지내는 공덕의 7분의 1은 영가에게 가지 만 7분의 6은 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공덕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가의 존재 유무를 막론하고 내가 내 마음의 조상님을 생각하고 천도재를 지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죽은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면 생전에 함께 지낸 인연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 아쉽고 애석하며 때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가를 보낼 때 이러한 마음도 모두 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분들의 대한 감정도 모두 보냈을 때 나와 영가가 모두 함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재를 지내며 영가를 위해서 불경을 외면 그것은 나의 공부입니다. 그 분을 생각하며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삶의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도재를 지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영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도 의식은 영가를 위하기보다 영전 앞에서 그분의 모습을 거울삼아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이 보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내 마음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번 지장재일을 잊지 않고 절에 와서 영가를 기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견고하게 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도재를 지내는 사람의 모습은 근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도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행하는 것은 상근기(上根機)입니다. 중근기(中根機)는 내 도리로서 한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근기(下根機)는 조상에게 그저 탄원하는 마음으로 재를 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유도 없이 조상님에게 의지해서 턱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하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상과 내가 함께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다는 마음인 상근기로서 천일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천도제는 망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얻어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동시에 나의 지혜도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재한 여러분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에 임해 영가와 내가 함께 천도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살이 살풀이 해몽 대사전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 일어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 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여기서 이르기까지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신비롭게 김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자·신국판·양정본·값 50,000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중함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